사상체질의학회지 2006;18(1):22-29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Vol. 18, No. 1, 2006;22-29
http://www.esasang.com

『東醫壽世保元』에서 이용된 蟌蟧의 起源에 대한 文獻的 考察

권승만 · 김일환 · 박혜선 · 김효수 · 임치혜 · 조재승

동신대학교 사상체질의학과

Abstract

The Liteatual Study on the Origin of QíCáo applied to 『Dongyi Suse Bowon』 of Korea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won Seung-Man, Kim Il-Hwan, Park Hye-Sun, Kim Hyo-Soo, Yim Chi-Hye, Cho Jae-Se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

1. Objectives and Methods

The original insect of QíCáo is described as the larvae of Holotrichia diomphalia Bates (Scarabaeidae) in oriental medicine literatures. Traditionally QíCáo inhabit on rotting wood, compost, and organic debris of soil or thatched roofs. They have the very important distinguishing mark that wriggle along on their back through rotting wood, compost etc. and they never do inflict the living crops. but, Holotrichia diomphalia Bates as the QíCáo is not right because of many questions, such as Holotrichia are the harmful insects eat into farm products, and those don't match well with korean farmers' moods if their cultivated lands are turned over for collecting QíCáo larvae, and especially they don't go on using their back.

2. Results and Conclusions

Accordingly, in the conclusion of this subject it is reported that the original insect of QíCáo is the larvae of Korean Cetoniidae(Coleoptera; Scarabaeoidea) insects including Genus Protaetia Burmeister(Protaetia orientalis submarmorea Burmeister, P.brevitarsis seulensis Kolbe, etc.) and the larvae of Korean Cetoniinae insects. Also, those were the original larvae of QíCáo that were applied to not only 'DongEuiBoGam' but also 'Dongyi Suse Bowon prescriptions'. Those feed on rotting wood, compost, and organic debris of soil or thatched roofs.

Key words : QíCáo, Holotrichia diomphalia Bates, Cetoniidae, Cetoniinae, Protaetia, Protaetia orientalis submarmorea, P.brevitarsis seulensis

Ⅰ. 緖 論

우리나라에서는 풍뎅이류의 유충들을 '굼벵이'라고 하여 민간에서 肝臟病 환자에게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1], 약용 굼벵이로서 알려진 '蟌蟧'는 中國 後漢時代에 著作된 最初의 本草學書 『神農本草經』[2]에 "蟌蟧, 味鹹微溫, 主惡血血瘀, 痹氣破折, 血在脅下堅滿痛, 月閉, 目中淫膚青翳白膜, 一名 蟅蟌, 生平澤" 이라 최초로 기재되었고, 最初의 『神農本草經』 補注本이라 불리는 中國 後漢末 陶弘景의 『名醫別錄』[3]에서 "寒, 有毒, 療吐血在胸腹不去及破骨踒折血結, 金瘡內塞, 產後中寒, 下乳汁, 一名 蜚蠊 一名 敎齊. 生河內及人家積糞草中, 取無時, 反行者 良. 蜚亡爲之使,惡附子"이라 기록된 이후, 諸 文獻에서 인용되었다.

四象醫學 분야에서는 東武 李濟馬 先生에 의해 太陰人 藥物로서 『東武遺稿』[4]에 "蟌蟧鹹溫在桑枯瘀閉脇堅不可無汁點眼翳開喉痺木刺癰瘡碎搗敷"라고 인용되었고, 1901年 咸興 栗洞契에서 발행된 『東醫壽世保元 辛丑本』[4]의 處方 중, '寒多熱少湯'加 蟌蟧 5-7個, 表證寒多者의 腹脹浮腫

• 접수일 2006년 02월 28일; 승인일 2006년 04월 06일
• 교신저자 : 조재승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4-256
동신옥동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2-2640-2717 Fax : +82-2-2640-2727
E-mail : chowltmd@hanmail.net

病, '乾栗螬蠹湯', 裡證熱多者의 浮腫, '葛根浮萍湯', 裡證者의 虛弱人, '拱辰黑元丹' 등의 四象處方에서 螬蠹가 운용되었다.

中國에서 輸入·流通되어 오늘날 螬蠹로 쓰이는 기원곤충은 金龜子과(풍뎅이과, Scarabacidae)에 속한 곤충인 검은풍뎅이(Holotrichia diomphalia Bates) 및 동속 근연곤충의 유충인 굼벵이이며[5], 그것은 3~6cm 깊이의 흙 속에서 생활하며 땅을 파서 포획하고 농작물의 뿌리를 갉아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6-9], 朴 등[10]은 陶弘景의 『名醫別錄』[3]에 "굼벵이는 집 근처의 두엄더미 속에서 살며 등으로 다니는 것이 좋다"는 기록에 의거하여 螬蠹의 기원으로 흰점박이꽃무지(protaetia brevitarsis seulensis)와 꽃무지아과(Cetonia)의 풍이(Rhomborrhina japonica), 제주 남색풍이(Rhomborrhina nigra), 검정풍이(Rhomborrhina polita), 점박이풍뎅이(Potosia aerata)라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東醫寶鑑』[11]이나 『鄕藥集成方』[12] 등에서 사용되었던 螬蠹가 현재 우리나라 藥材市場에서 유통되는 螬蠹와 같은 起源昆蟲인지에 대한 硏究가 未備하고, 또 『東醫壽世保元』[4]에서 이용된 螬蠹가 『東醫寶鑑』[11]이나 『鄕藥集成方』[12] 등에서 사용되었던 螬蠹와 같은 起源을 두는지를 밝힌 硏究 또한 없었으므로, 이에 따라 올바른 螬蠹의 起源을 밝히고 四象處方에서 이용된 螬蠹에 대해 四象醫學的 再解釋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著者는 古今의 文獻을 토대로 서식지, 생태적 특성, 현대 곤충학적인 분류 등에 따른 螬蠹의 起源에 대해서 考察해 본 結果, 若干의 知見을 얻었으므로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Ⅱ. 本 論

1. 서식지에 따른 분류

굼벵이의 서식환경으로는 맨 먼저 『神農本草經』[2]에 '生平澤(평지의 연못)'이라 처음 언급된 이후, 『名醫別錄』[3]에서 '人家積糞草中(人糞과 풀더미)'이라 하여 민가의 두엄더미 속에서 채취한 기록이 있고, 이후 郭璞은 螬蠹가 인분과 풀더미, 썩은 나무에 서식한다고 하였다('在糞土中', '在木中')[2].

반면, 『中藥大事典』 등[6-9]에서 螬蠹의 기원곤충으로 알려져 있는 朝鮮黑金龜子(검정풍뎅이류)의 幼蟲은 5~8월에 땅을 파서('翻土') 포획한다 하였고, 張[23]은 경작지 토양을 갈아엎을 때에 포획한다 하였으며("夏, 秋二季, 在翻土耕地時捕捉"), 김[13]은 참검정풍뎅이가 인삼포에 피해를 주는 등 작물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해충으로 유충의 서식지는 토양내의 식물뿌리 근처라고 하였다.

이것은 諸 文獻에서 螬蠹가 두엄더미나 오래된 초가지붕, 썩은 나무, 썩은 볏짚 등의 서식지에서 채취되어 온 것과는 다른 내용이며[5, 11-17], 또한 김[13]과 김 등[17]이 『東醫寶鑑』[11]에 근거하여 약용 굼벵이로서 제시한 점박이꽃무지류의 유충 채집과정에서, 부숙된 초가, 볏짚, 퇴비더미나 유기물로 피폭된 토양, 부숙된 나무 등에서 채집하였던 것과 전혀 상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中藥大事典』등[6-9]에 기록된 螬蠹(朝鮮黑金龜子 및 近緣昆蟲의 幼蟲)는 螬蠹의 기원에 대해 잘못 인용, 기록되어 온 것으로 생각되며, 『中藥大事典』등[6-9]에 인용되었던 螬蠹는 작물농작지내의 토양이라는 서식지에서 서식하였던 종이었고, 두엄더미·오래된 초가지붕·썩은 나무나 썩은 볏짚 등에서 채취된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이 외에, 舊韓末에 四象醫學을 창시한 東武 李濟馬 先生의 著作인 『東武遺稿』[4]에서는 螬蠹의 서식지로서 '(桑蟲으로서) 썩어 말라버린 뽕나무에서 서식한다'고 기록되었다(螬蠹 鹹溫在桑枯 瘀閉脇堅不可無 汁點眼翳開喉痺 木刺癰瘡碎搗敷)'.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備用本草』[15]에서 말하길 '日華子諸家本草에서는 뽕나무나 버드나무 안에서 수집한 것이 좋고 여타의 곳에서 수집한 것은 부적당하며, 糞土 중에 있는 것은 惡瘡에 붙일 수 있다' 하였고, 雷公은 '뽕나무와 栢樹(측백나무 또는 측백나무과의 상록교목)에 있는 것이 신묘하다'고 하였고, 陳藏器本草에서는 '桑蠹'을 설명하면서 '소와 비슷한 양쪽의 긴 뿔과 하얀 점이 있고, 뽕나무를 물어뜯어 구멍을 낸다'고 하여, 螬蠹는 '뽕나무나 버드나무에 있는 것을 채취하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Table 1. The Literatual Study on the Habitat of QiCáo

歷代文獻	蟅螬의 서식지 및 채취에 대한 기록	備考(A.D)
神農本草經	生平澤	-戰國時代 末期
名醫別錄	生河內 及 人家積糞草中	後漢末-三國時代
雷公炮炙論	桑樹,栢樹	唐-宋
日華子 諸家本草	生桑柳樹中, 生糞中者,可敷惡瘡	宋代
新修本草	生河內 及 人家積糞草中, 在腐木中	659年
本草圖經	生河內 及 人家積糞草中, 在木中	1058年
重修政和 經史證類 備用本草	生河內 及 人家積糞草中	1249年
本草綱目	樹根 及 糞草中生, 舊茅屋上生	1578年
鄕藥集成方	生人家積糞草中, 在腐木中, 在桑柳樹中	1433年
東醫寶鑑	生人家積糞草中, 生桑柳樹中	1610年
本經疏證	生河內平澤 及 人家積糞草中	1632年
東武遺稿	在桑枯	1895年
中藥大事典	生活于3~6cm 深的土內, 5~8月間 翻土捕捉	1985年
有毒中草藥大事典	生活于3~6cm 深的土內, 5~8月間 翻土捕捉	1994年
中國本草 圖鑑	여름과 가을에 땅이나 두엄을 뒤집어 잡는다	1994年
淄博本草	生活在土內 3~6cm的深處, 5~9月間 在翻土耕地時捉取	1995年
全國中草藥會編	5~8月間在樹根,草根近處 深 1~2寸的土中, 在翻土耕地時捉取	1996年
常用中藥 鑑定大全	夏·秋二季, 在翻土耕地時捉取	1997年

그러나 이미 中國 宋代(A.D 1058年)에 蘇頌이 편찬한 『本草圖經』[14]에서 '이름은 있으나 아직 쓰지 않는 것 중 桑蟲(名醫別錄의 蝎,蛄也)이란 조목이 있는데, 神農本草經에서 말하는 糞이나 풀더미 속에 서식하는 것과 주치하는 것이 완전히 구별된다' 하였으며, '蘇恭이 나무속에 서식하는 것을 써야 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醫家들이 產褥婦의 催乳藥으로 糞土속에 사는 것이 그 효과가 빠르므로 蘇恭의 설이 근거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를 통해서 보자면, '뽕나무에 서식하는 것을 蟅螬로 사용한다'라는 것과 '나무에 서식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 두 가지 주장은 많은 논란이 있었을 뿐 아니라, 뽕나무·버드나무에 기생하는 유충은 채집되는 빈도가 적었다고 생각된다(有名未用中, 自有桑蟲條. 桑蟲卽蛄也, 與此主療殊別[14]).

뽕나무와 버드나무에 서식하는 곤충을 유추해 보면, 딱정벌레목 하늘소과의 뽕나무하늘소가 대표적이며 뽕나무하늘소의 서식장소는 뽕나무·버드나무·사과나무·무화과나무 등이고 성충은 가지나 줄기를 물어뜯어 상처내고 알을 낳아 유충 2년째에 줄기 속에서 큰 유충으로 월동한다고 하며, 알락하늘소의 애벌레[1]도 버드나무류에 기생한다. 명확히 뽕나무와 버드나무에 서식하는 모든 유충과 곤충들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긴 뿔과 하얀 점 등이 있는 하늘소과의 곤충들도 뽕나무나 버드나무에 서식하는 곤충 종의 하나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늘소과의 곤충을 蟅螬의 기원곤충으로 기록된 문헌은 없으며, 뽕나무에 기생하고 유충의 크기가 설령 비슷하다 할지라도 하늘소과 곤충의 유충들까지 蟅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희박하다.

위 내용들로 볼 때, 諸 文獻과 『東醫寶鑑』[11] 등에서 제시되었던 蟅螬는 두엄더미나 오래된 초가지붕, 썩은 나무, 썩은 볏짚 등의 서식지에서 채취된 것을 주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점박이꽃무지류가 이와 같은 서식지에서 서식하는 대표

적인 종임을 알 수 있으며[13,17], 또 『東武遺稿』[4]에 기록된 뽕나무에 기생하는 굼벵이가 蟅蠐로 인용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中藥大事典』 등[6-9]에서의 蟅蠐(朝鮮黑金龜子 및 近緣昆蟲의 幼蟲)가 작물농작지의 토양 내 식물뿌리 근처에서 서식한다는 것은 기원 및 서식지에 대해 잘못 인용, 기록되어 온 것이다.

2. 운동특징에 따른 움직임

『名醫別錄』[3]에서 처음으로 "反行者 良"이라 하여 蟅蠐의 생태특성 중 '등으로 기어 간다'고 기록한 이후 여러 학자들은 약용굼벵이인 蟅蠐가 등을 이용하여 이동한다고 이야기 하였다[2,11-18,29].

蟅蠐가 등으로 기어가는 이유는 1578年에 저술되어 明 以前의 藥物學 成就를 계통적으로 총결한 本草學書籍 『本草綱目』[18]에 나와 있는 蟅蠐의 性狀대로 '누에와 비슷한데, 크기가 좀 더 크며 몸통은 짧고 주름이 촘촘하다'는 모습이다(Fig. 1), 김[1]의 '굼벵이는 다리가 짧고 이동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에 머리 크기가 작고 다리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이동할 때는 주름이 많고 잔털이 많은 등 쪽을 이용하여 이동함을 알 수 있다(Fig. 5, 6).

이에 합당하는 것으로서 점박이꽃무지와 흰점박이꽃무지종 및 꽃무지과 곤충들의 유충이 등으로 기어가는 특징이 있고, 이 종들은 머리 크기가 작고 다리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이동할 때는 주름이 많은 등을 이용하여 이동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등으로 기어가는 운동특성으로 볼 때, 점박이꽃무지와 흰점박이꽃무지류 및 꽃무지과 곤충의 유충들은 『東醫寶鑑』[11] 및 『鄕藥集成方』[12] 등에 언급되고 蟅蠐로 사용되었던 기원곤충일 가능성이 높고, 이 후 四象醫學[4]에서 인용되고 사용되었던 蟅蠐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 우리나라 민간에서 약용굼벵이로 유통되는 장수풍뎅이의 유충은 등으로 기어가지 않는다고 약용시장에서 알려져 있다.

Table 2. The Literatual Study on the Motion Idiosyncrasy of QíCáo

	文獻 및 資料名	內容	備考(成蟲)
등으로 기어가는 운동특성을 수록한 문헌 및 자료	名醫別錄	反行者 良	
	神農本草經(吳普)	以背行, 快於用足	
	本草綱目	背轉行速於脚	
	備用本草	反行者 良	
	新修本草	以背滾行,乃駛于脚	
	本經疏證	以背滾行,快于脚	매미(蟬)의 幼蟲
	本草圖經	以背行,反快于脚	
	東醫寶鑑	反行者良. 以背行. 反快於用脚. 不背行者 非眞蟅蠐也	
	鄕藥集成方	등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등으로 굴러가는 것이 발로 가는 것 보다 빠르다	
	흰점박이꽃무지의 생육특성	등으로 기어가는 점이 큰 특징이다	흰점박이 꽃무지, 풍이, 제주남색 풍이, 검정풍이, 점박이풍뎅이의 幼蟲
	文獻 및 資料名	備考(成蟲)	
	中藥大事典	朝鮮黑金龜子의 幼蟲	
	有毒中草藥大事典	朝鮮黑金龜子의 幼蟲	
	全國中草藥會編	朝鮮黑金龜子, 或 銅綠金龜甲의 幼蟲	
	淄博本草	朝鮮黑金龜子의 幼蟲	
	常用中藥鑑定大全	朝鮮黑金龜子의 幼蟲	
	中國本草圖鑑	東北大黑鰓金龜의 幼蟲	

3. 害蟲, 非害蟲에 따른 분류

中藥大事典, 有毒中草藥大事典 등[6-9]의 몇몇 문헌에서는 蟅蠐의 기원곤충을 朝鮮黑金龜子(Holotri-

Table 3. The Literatual Study on the Vermins and Unharmful Insects

	文獻 및 資料名	內容	蠐螬로서 제시된 起源昆蟲
害蟲	有毒中草藥大事典	蠐螬生活于 3-6cm深的土內, 咬食作物的根部	朝鮮黑金龜子의 幼蟲
	中藥大事典	蠐螬生活於 3-6厘米深的土內, 咬食作物的根部	朝鮮黑金龜子의 幼蟲
	全國中草藥會編	在樹根,草根近處 深1-2寸的土中, 在翻土耕地時捉取	朝鮮黑金龜子, 或 銅綠金龜甲의 幼蟲
	淄博本草	生活于3-6cm 的深處, 咬食植物的根部	朝鮮黑金龜子의 幼蟲
非害蟲	文獻 및 資料名	內容	蠐螬로서 제시된 起源昆蟲
	점박이꽃무지류의 발생상황 및 실내에서의 발육특성	살아있는 식물은 가해하지 않는다	점박이꽃무지, 흰점박이꽃무지 등의 점박이꽃무지류. ※참검정풍뎅이는 인삼포 및 식물의 뿌리를 가해하는 해충
	韓國昆蟲生態圖鑑	살아있는 식물은 가해하지 않는다	점박이꽃무지, 풍이

chia diomphalia Bates; 검정풍뎅이)의 幼蟲 및 그 近緣昆蟲의 幼蟲이라 하였는데, 그것들은 3~6cm 깊이의 흙 속에서 생활하며 농작물의 뿌리를 갉아먹으며, 경작지 토양을 갈아 엎을 때 포획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13]은 참검정풍뎅이는 인삼포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며 기타 식물의 뿌리를 가해하는 食植性 昆蟲으로 유충의 서식지는 토양내의 식물뿌리 근처로서 퇴비더미나 썩은 초가지붕에서 서식하지 않는 부식성 곤충이라고 하였고, 농촌진흥청[20]에서는 땅콩에 피해를 주는 굼벵이로 참검정풍뎅이와 큰검정풍뎅이등 3종류를 들고 있으며, 이들 굼벵이는 7~8월 땅콩의 결협기와 등숙 초기 때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였고, 김[21]도 큰검정풍뎅이의 성충은 4월부터 9월까지 볼 수 있으며 5~6월경 산란하고, 애벌레는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고 자라는데 특히 묘목장의 해충으로 유명하고, 참검정풍뎅이는 우리나라의 검정풍뎅이류 중 가장 많으며 식물의 해충이라고 하여, 참검정풍뎅이 및 큰검정풍뎅이속의 유충은 흙 속에서 생활하며 농작물의 뿌리를 갉아먹는 해충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작물의 뿌리를 갉아먹음으로써 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약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채취과정에서 인삼, 땅콩 등의 경작지를 일부러 갈아엎거나, 그 갈아엎을 시기에 맞춰 채취한다는 것은 농경과 작물재배 등을 주로 생업으로 삼았던 우리나라 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반면 蠐螬의 기원곤충으로서 가능성이 높은 흰점박이꽃무지나 점박이꽃무지는 썩은 나무나 초가집의 지붕, 퇴비더미 등에서 서식하면서 썩는 짚, 낙엽 등을 먹고 자라며 살아있는 식물은 가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작물의 뿌리를 먹이로 하는 食植性의 유충이 아님을 알 수 있다[13,17,21].

4. 현대 곤충학적인 분류

1) 蠐螬의 起源으로서 朝鮮黑金龜子(검정풍뎅이류) 幼蟲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中國에서 輸入·流通되어 오늘날 蠐螬로 쓰이는 기원곤충으로 金龜子과(풍뎅이과; Scarabacidae)에 속한 곤충인 검정풍뎅이 및 동속 근연곤충의 幼蟲이라고 알려져 왔다[5-9,22-24].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서 그 기원이 의심된다.

검정풍뎅이 및 그 근연곤충인 참검정풍뎅이, 큰검정풍뎅이 등의 유충들은

① 서식지가 토양내의 식물뿌리 근처에서 채취될 뿐, 蠐螬에 대한 諸 文獻에서 기록된 바의 두엄더미나 오래된 초가지붕, 썩은 나무, 썩은 볏짚 등에서는 서식하지 않으며, 그것들은 ② 3~6cm 깊이의 흙 속에서 생활하며 농작물의 뿌리를 갉아먹음으로써 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인 것이고, 또한 ③ 채취과정에서는 인삼, 땅콩 등의 경작지를 일부러 갈아엎거나, 그 갈아엎을 시기에 맞춰 채취한다는 것은 농경과 작

Table 4. The Literatual Classification on Chinese QíCáo Imported from China and Distributed int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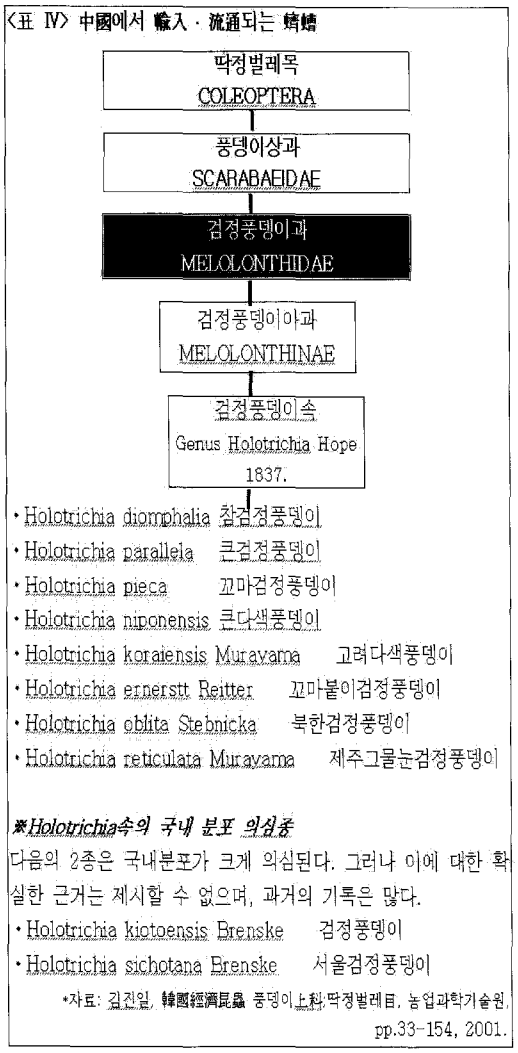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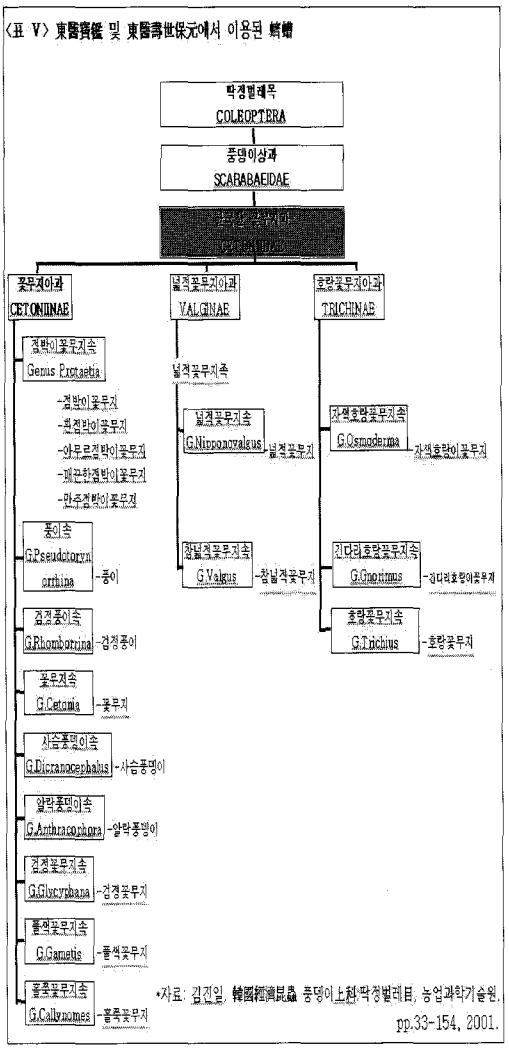


Table 5. The Literatual Classification on QíCáo Applied to 'DongEuiBoGam' and 'Dongyi Suse Bowon'



물재배로 생업으로 삼았던 우리나라 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④ '약간 고약한 냄새가 난다'[7] 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中國産 輸入 蜣螂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오동정(誤同定)으로 인한 잘못된 기원곤충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것이거나, 이미 유통과정에서 약재가 부식부패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그 약효 및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2) 현대 곤충학적 분류를 통해 살펴본 蜣螂의 起源

이에 諸 文獻을 토대로 考證한 결과, 本 著者는 한반도 전역에 고루 분포하여 예전부터 民藥으로 쓰였던 점박이꽃무지(protaetia orientalis submarmorea Burmeister), 흰점박이꽃무지(P.brevita -rsis seulensis Kolbe) 등의 꽃무지속(Cetonia) 5종과 풍이(Pseudotorynorrhina japonica Hope), 검정풍이(Rhomborrhina polita Waterhouse)를 포함한 꽃무지아과(Cetoniinae) 및 기타 한국산 꽃무지과(Cetoniidae)

곤충들이 陶弘景의 『名醫別錄』[3]에 기록된 '굼벵이는 집 근처의 두엄이나 풀 더미 속에서 살며, 등으로 다니는 것이 좋다'는 주장과 부합하는 굼벵이일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 民藥으로 사용되었던 약용 굼벵이로서 두엄더미나 오래된 초가지붕, 썩은 나무, 볏짚이 부숙된 곳에서 서식하는 종 중 우위를 점한 종은 흰점박이꽃무지, 점박이꽃무지이다[13].

또한 四象處方[4]에서 운용이 되었던 蟅螬도 마찬가지로, 『東醫寶鑑』[11] 등에서 언급되고 사용되어 왔던 점박이꽃무지류 및 꽃무지과 곤충의 유충들로 생각되며, 『東武遺稿』[4]에서 '蟅螬在桑枯'라 하여 뽕나무에 기생하는 굼벵이가 蟅螬로 인용된 것은 잘못 기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약용 굼벵이로서의 蟅螬에 대한 정확한 분류·동정 및 약리학적으로 심도있는 연구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민간 약용 굼벵이의 실태

꽃무지과의 풍이(Pseudotorynorrhina japonica)는 알을 썩은 나무나 볏짚 같은 데에 낳고, 애벌레는 이 나무를 파먹고 자라며, 제주도나 그 밖의 섬에서는 아직 많이 볼 수 있는데, 점박이꽃무지류(Protaetia속)와 풍이는 전체적인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여 풍이나 점박이꽃무지의 애벌레는 모두 굼벵이라는 이름으로 民間에서 약용으로 팔리고 있다[1,21].

또 요즘 民間 약용시장에서는 장수풍뎅이 애벌레도 많이 나오고 있고[1,21], 사슴벌레 애벌레도 굼벵이로 사용되고 있다. 시중에서 장수풍뎅이 유충의 약리학적 효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그 애벌레의 크기가 비슷하고 서식지가 꽃무지류와 비슷하여 약용 굼벵이로써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

한편 『本草綱目』[18]과 『本經疏證』[29]에서는 '한여름이 지나면 등을 가르고 나와서 매미(蟬)가 된다.'고 하고, '蟅螬는 똥이나 거름처럼 더러운 기가 맑은 작용을 누르고 막으면 蟅螬가 생긴다.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매미가 된다'[29] 고 하여 蟅螬의 성충을 매미(蟬)라 하였다. 우리나라 民間에서도 매미의 애벌레를 약용굼벵이 또는 蟅螬로 오인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매미의 애벌레도 몸이 뚱뚱하고 흰색이며 행동이 느려서 굼벵이와 비슷하지만, 앞다리가 유난히 크고 불완전변태를 하기 때문에 날개 없는 매미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딱정벌레류의 경우 25도에서 30도의 온도에 수분이 적당하면 10일정도 지나 부화하며 다 자란 굼벵이는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되는 완전변태를 한다[13,25]. 백과사전에 의하면 완전변태란 유충·번데기·성충의 3기가 뚜렷이 다르게 구별되는 경우를 말하며, 유충기에는 노숙하여도 날개의 성충아(成蟲芽)가 내부에 감추어져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애벌레의 크기와 형태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장수풍뎅이, 하늘소과 곤충, 매미 등의 유충을 蟅螬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Ⅳ. 結 論

古來의 文獻을 토대로 서식지·생태적 특성 등에 따른 蟅螬의 起源과 效能 및 東醫壽世保元에서 蟅螬가 활용된 處方에 대해 考察해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蟅螬는 『神農本草經』에 그 名稱과 效能·主治 및 서식지가 언급되었다.

2. 中國에서 輸入·流通되는 蟅螬는 金龜子科(풍뎅이과;Scarabacidae)에 속한 곤충인 朝鮮黑金龜子(Holotrichia diomphalia Bates; 검정풍뎅이) 및 동속 근연곤충의 幼蟲이고, 東醫寶鑑 및 東醫壽世保元에서 이용된 蟅螬는 한반도 전역에 고루 분포하여 예전부터 民藥으로 쓰였던 점박이꽃무지(protaetia orientalis submarm -orea Burmeister), 흰점박이꽃무지(P.bre -vitarsis seulensis Kolbe) 등의 꽃무지속(Cetonia) 5종과 풍이(Pseudotorynorrhina japonica Hope), 검정풍이(Rhomborrhina polita Waterhouse)를 포함한 꽃무지아과(Cetoniinae) 및 기타 한국산 꽃무지과(Cetoniidae) 곤충들이 이에 해당된다.

3. 서식환경으로는 朝鮮黑金龜子와 근연곤충

의 幼蟲은 5~8월에 토양내의 식물뿌리 근처에서 서식하며, 점박이꽃무지류의 幼蟲은 부숙된 초가, 볏짚, 퇴비더미나 유기물로 덮혀진 토양, 부숙된 나무 등에서 채취되어 왔다.

4. 朝鮮黑金龜子와 근연곤충의 幼蟲은 등으로 기어가는 운동특징이 언급된 문헌이 없었고, 꽃무지과 곤충들의 특징은 등으로 기어가는 특징이 있다.

5. 朝鮮黑金龜子와 그 근연곤충들의 幼蟲은 식물의 뿌리를 가해하는 植食性 害蟲이고, 흰점박이꽃무지나 점박이꽃무지는 살아있는 식물은 가해하지 않는 非害蟲이다.

V. 參考文獻

1. 김진일, 이원규.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곤충 백가지. 현암사, 서울, 2002:122-127, 172-173, 176-177.
2. 吳普. 神農本草經. 醫聖堂, 서울, 2003:215-216.
3. 陶弘景. 名醫別錄.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190.
4. 권건혁. 國譯 東醫壽世保元-부록 동무유고. 반룡출판사, 서울, 1999:280-328, 부록 8.
5. 辛民敎. 臨床本草學. 永林社, 서울, 1997:550.
6. 郭曉莊. 有毒中草藥大事典. 天津科技翻譯出版公司, 天津, 1994:565-567.
7. 안덕균, 이경순, 신민교, 김창민 역. 中藥大事典. 정담, 서울, 1999:3825-3827.
8. 全國中草藥滙編編寫組. 全國中草藥會編 下册,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604-605.
9. 趙亦成. 淄博本草.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5:565-566.
10. 朴基南, 權太英, 金河坤, 辛民敎. 굼벵이에 관한 本草學的 硏究. 한국전통의학회지. 1997;7(2):1-4.
11. 許浚. 東醫寶鑑, 驪江出版社, 서울, 1994:697, 818, 930, 949, 1330, 2150, 2157, 2505, 2657.
12. 辛民敎, 朴炅, 孟雄在 譯. 鄕藥集成方 下. 永林社, 서울, 1989:1723, 1989-1990.
13. 김철학. 점박이꽃무지류의 발생상황 및 실내에서의 발육특성.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0.
14. 蘇頌. 本草圖經. 安徽科學技術出版社, 合肥, 1994:487.
15. 唐愼微.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428.
16. 蘇敬. 新修本草. 安徽科學技術出版社, 合肥, 2004:240.
17. 김하곤, 강경홍. 흰점박이꽃무지의 생육특성. 한국응용곤충학회지. 2005;44(2):139-144.
18. 李時診. 註頭國譯本草綱目. 春陽堂, 東京, 1929:177-183.
19. Kim MA, Lee HA, Park HC. A Taxonomic Study of Immature Stage in Three Species of the Genus Protaetia Burmeister(Coleop-tera: Scarabaeoidea, Cetoniidae) from Korea. korean journal of entomology. 2003;33(4):231-236.
20. 농촌진흥청산하 작물과학원 홈페이지. Available from: URL:http://crop.nics.go.kr/main. asp
21. 김진일. 韓國昆蟲生態圖鑑 3권. 고려대학교부설 한국곤충연구소, 서울, 1998:45-48, 53-55, 72-75.
22. 申佶求. 申氏本草學. 壽文社, 서울, 1987:568-569.
23. 張貴君. 常用中藥鑑定大全.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7:838-839.
24. 蕭培根. 中國本草圖鑑 第二卷. 여강출판사, 서울, 1994:320.
25. 이수영. 우리곤충도감. 예림당, 서울, 2004: 63-67.
26. 김진일. 韓國經濟昆蟲 풍뎅이 上科, 딱정벌레目. 농업과학기술원, 서울, 2001:33-154.
27. 김진일, 이원규. 쉽게찾는 우리곤충. 현암사, 서울, 2003:233-237.
28. 류강선. 곤충유래 간기능 보호물질 탐색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2000.
29. 鄒澍. 本經疏證 上. 대성의학사, 서울, 2001:347-348.